

파프리카 베트남 첫 수출

운봉농협, 국내 최초로 수출길 열어... 선적식 개척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운봉농협(서영교 조합장)은 12일 운봉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시조공법인, NH농협무역, aT, KOPA(주) 등과 함께 파프리카 2톤을 베트남에 첫 수출하기 위한 선적식을 가졌다. (권연기 기자 11면)

이날 선적식은 운봉농협이 베트남 수출전문단지로 지정돼 대한민국 최초로 파프리카를 베트남에 수출하게 됨에 따라 진행됐다. 운봉농협은 올해 파프리카 수출공선

장은 물론 일본, 중국, 베트남 홍콩에 수출하는 등 유통경로를 다각화해 판매를 증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에 팔아주는 강소농협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도 운봉농협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힘써 작년 중국 수출전문단지 지정, 올해는 베트남 수출전문단지 지정이라는 큰일을 해내신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전북농협은 이에 상응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농산물을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전북 경제성장 새 돌파구 모색할 것'

이현웅 신임 전북경진원장, 오늘 온라인 취임 후 본격 업무 돌입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남원 출신으로 전북사대부고와 전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

를 수료했다.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전주시 산업과장, 정보영상과장, 문화관광과장을 거쳐 전주시 문화경제국장과 전주시 덕진구청장을 역임했다. 이후 전북도에서 투자유치국장, 민생일자리본부장,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해, 대통령소속국립대 통합위원회, 안전행정부, 총리실 등을 거치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생활을 해온 바 있다. /김윤성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12일 전문건설회관 6층 협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머리 맞대다

전건협 전북도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간담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이 12일 전문건설회관 6층 협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현철 지청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설명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및 업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인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망사고 예방활동 강화와 코로나19 예방활동 강화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설현장 만들기에 보다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현장에서의 크고 작은 안전보건사고 및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을 예방하

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동 의무 위반에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등을 규정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이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 올해 초부터 개정 법령이 시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점 추진 사업인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의 추진 계획으로는 ▲순찰차를 이용한 소규모사업장 패트롤 점검 강화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불시 감독 ▲유관기관 활용 산재사망사고 사례전파 ▲노사가 함께하는 위험요소 발굴 및 자율 개선 등이 있다. 전주시 인후동에 소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중합청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전주, 정읍, 남원 등 3개 시와 완주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등 6개 군을 관할하며, 지역 근로자 및 주민들을 위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직업훈련,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 노사분쟁 예방 및 조정 산업재해의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과 개정·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내용으로 회원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안내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예방활동에 협조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계와 지역 사회에 힘을 보탬 수 있도록 지역 고용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협회는 전주지청과의 업무공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기자

최고품질의 쌀 맛 보실래요?

농진청, '쌀의 날' 맞아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재배 품종 소개 익산 미호·십리향, 영광 새청무·진상2호 등... 10월 말 유통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오는 18일 '쌀의 날'을 앞두고 올 가을 시중에 유통될 예정인 햅쌀 가운데 최고 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최고품질 벼 생산 단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을 12일 소개했다. 최고품질 벼 생산 단지는 농촌진흥청이 각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과 협력해 외래 품종 대신 밥맛 좋고 지역 적응성이 뛰어난 국내 육성 벼 품종을 재배하기 위해 조성했다. 2020년부터 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으며, 규모는 전국 20개소 3819.8헥타르(ha)에 이른다. 각 단지에서는 농촌진흥청, 도(道) 농업기술원, 민간유종회사가 개발한 국내 육성 벼 가운데서 선정한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2021년 최고품질 벼 생산 단지는 ▲경기 고양(품종 : 가와지호) ▲강원 원주(품종 : 삼광 윤광, 대안, 고흥찰벼) ▲충북 괴산(품종 : 진상2호) ▲충남 서산(품종 : 백옥향) ▲전북 익산(품종 : 미호, 십리향) ▲전남 영광(품종 : 새청무, 진상호) ▲전남 함평(품종 : 호평, 조평) ▲경북 상주(품종 : 일품 미소진미) ▲경남 거창(품종 : 삼광) 등이다. 각 단지에서 재배된 벼는 지역 내 미곡종합처리장(RFC), 농협, 농업회사법인 등에서 가공·포장 과정을 거친 뒤 각 지역 고유상표를



반부패·청렴 업무 향상 자체 감사역량 강화

전기안전공, 에너지공단과 '맞손'

한국전기안전공사(상임감사 함종걸)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최근 울산에 위치한 에너지공단 본사에서 공사 함종걸 상임감사와 에너지공단 임상경 상임감사가 함께한 가운데 '감사 업무 교류와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공유 ▲감사활동 시 전문 인력 지원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등 자체감사기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함종걸 상임감사는 "감사분야의 실질적 교류를 통해 업무역량을 높이고 안전과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표준화 금융 상담돌 'NH위드토크 2.0' 로 더 깊은 서비스 제공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전 영업점서 활용키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디지털 전환(DT)의 일환으로 표준화 금융상담돌인 NH위드토크(With-Talk)2.0을 전 영업점에서 활용한다고 12일 밝혔다. NH위드토크는 금융상담 자료를 시각화 시뮬레이션화해 직원과 고객이 함께 화면을 보며 쉽고 간결하게 상담할 수 있는 상담도구로 계산기나 종이 대신 전자창구(PRR)시스템 화면을 통해 쉽고 직관적으로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설명할 수 있다. NH위드토크2.0을 활용하면 기존 언어 중심의 상담을 넘어 시경각자료를 뒷받침해 고객이 금융상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올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 본부장은 "NH위드토크 2.0의 출시로 대면 영업의 강점인 상담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더 깊은 서비스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디지털 전환(DT)의 일환으로 표준화 금융상담돌인 NH위드토크(With-Talk)2.0을 전 영업점에서 활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순창 농어촌공, 수질오염 방제 녹조제거훈련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이춘성)는 12일 순창군 인계면에 위치한 인계저수지에서 직원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질오염 방제 녹조제거 훈련을 실시했다. 녹조방제 훈련에는 수질보존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오염원을 조기 차단하고자 녹조방지제(위터케어플러스)를 희석해 고압분무기와 보트를 이용하여 수중에서 녹조방지제를 살포하

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수질오염은 매년 증가되고 있어 녹조방제 훈련을 통해 저수지 녹조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및 녹조 발생으로 인한 악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수질오염 방제체계를 사전에 구축하여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군산 오피스텔 금광 행복주택 조감도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 행복주택 공급

군산 금광 98세대로 주변 임대시세 최대 80%서 추가 20% 경감 전개공, 16일 모집공고... 청약접수는 내달 9일부터 16일까지

전북개발공사가 군산시 오피스텔에 군산 금광 행복주택 98세대를 공급한다. 공급 유형은 21㎡(11평형) 34호, 29㎡(14평형) 30호, 36㎡(17평형) 34호 등이다. 군산 금광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 신혼부부 및 고령자 등에게 주변 임대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조건에서 20%를 추가 경감해 공급하게 된다.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김윤성기자

청약 신청은 오는 9월 9일부터 16일까지이며 행복주택 건설지역 인근 '서해대학 농특융합기술실습장'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나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9월 16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를 권장한다. 신청자격, 단지배치도, 평면도를 비롯한 세부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임대문의 전화(063-280-7418)를 통해 이달 17일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윤성기자

전주평화우체국, 채무상환 사칭 보이스피싱 예방

전북지방우정청(청장 허원식)은 우체국 직원들의 기지와 적극적인 대처로 70대 노인의 소중한 돈 3천만원의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경 전주평화우체국을 방문한 오모씨(77)는 본인의 정기예금을 만기 해약해 자녀에게 준다는 3천만원짜리 수표로 인출해왔다. 같은 날 낮 12시 경 다시 우체국을 방문한 오모씨는 수표를 타행계좌로 입금하는 한지 문의한 후, 계좌번호는 휴대폰 문자로 받기로 했다며 불안한 듯 서성거렸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금융경비원 김선령 씨와 금융상담 노미정 직원이 송금목적지를 물어보자 오씨는 "아들이 보증을 잘못 서서 내가 대신 그 채무를 상환하려고 한다"며 반드시 본인 명의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직원들은 "채무상환을 할 때는 채무자 명의로 송금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물어보았으나 오 씨가 횡성수출하자 채무상환 관련 사기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평소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받아 응대 요령을 숙지하고 있던 직원들은 오 씨 아들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고, 인근 평화동 지구대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아들이 보증을 잘못 서서 빚이 있으니 대신 부모가 갚아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범피로 확인됐다. /김윤성 기자